

numbers 제 105호



주요 내용

2021.07.23

1. 이번 주 주제 :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의 동성애 인식]

- 개신교인, 동성애 '인정해줘야 한다' 15%, '인정하기 어렵다' 76%!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3%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팬데믹 이후 전세계 실업자 증가] 팬데믹 이후 전 세계 1억 1,400만 명 실업자 발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개신교인, 동성애 '인정해줘야 한다' 15%, '인정하기 어렵다' 76%!

현재 국회에는 '차별 금지'와 관련한 정부정의 국민 청원 두 개가 올라와 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법에 대한 부정 청원이다.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 이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분분한 것은 '성적(性的) 지향' 문제이다. 이는 동성애와 연결이 된다.

동성애 문제는 한국 교회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이슈들 중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실제 동성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떤지 정확한 통계 수치(Factual Data)를 한국 교회가 알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동성애 관련 통계 자료를 모아보았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일반 국민 가운데 긍정 인식보다는 부정 인식이 훨씬 많다는 점, 개신교인 4명 중 3명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점, 그리고 신앙 수준과 연령 변수가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105호는 동성애와 관련,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의 실제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동성애 인식 관련 객관적 통계 자료를 한국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리하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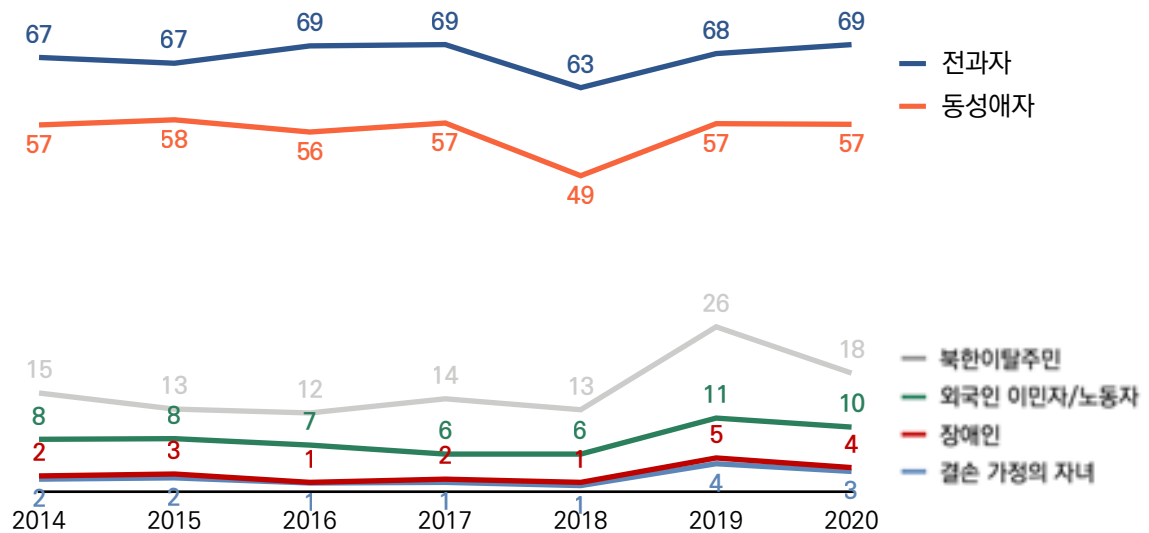
1



한국인, 동성애자 배제 의식 57%

- 우리 사회의 6개 소수자 그룹, 즉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결손가정 자녀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 수용할까? 혹은 배제할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아본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배제 인식이 전과자와 동성애자에게서 매우 높았고, 반면 나머지 4개 그룹은 큰 격차를 두고 비교적 낮았다.
-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2014년 이후 57% 안팎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동성애자에 대한 배제 의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국민의 소수자 배제 인식 추이 - '받아들일 수 없다'(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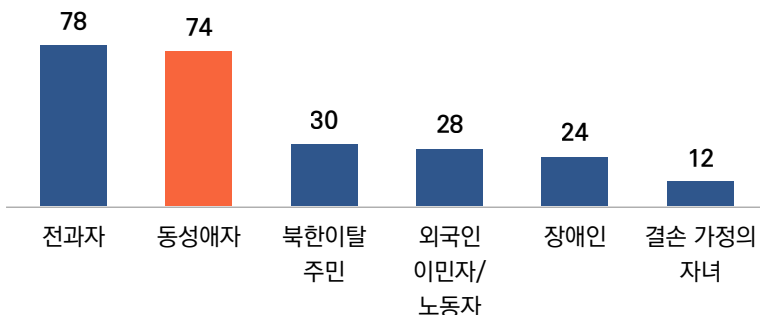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1.02.23.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 대면조사, 한국갤럽, 2021.09.01.~10.31.)
 **설문 :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5가지 보기를 제시한 질문으로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답률만 표기하였음

● 자녀의 배우자로서 한국인은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 6개 그룹의 소수자 각각을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질문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과자(78%)와 동성애자(74%)가 비슷하게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른 4개 그룹은 앞의 두 그룹보다는 크게 낮았다.

[그림]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일반 국민)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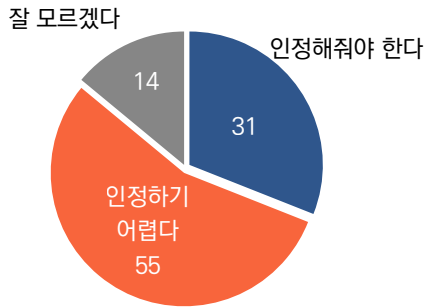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1.02.23.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 대면조사, 한국갤럽, 2021.09.01.~10.31.)

● 일반 국민, 동성애 ‘인정해줘야 한다’ 31%, ‘인정하기 어렵다’ 55%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인정해 줘야 한다’ 31%, ‘인정하기 어렵다’ 55%로 긍정 의견보다는 부정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성애 관련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주장되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 여론은 긍정보다는 부정 의견이 더 많은 상태이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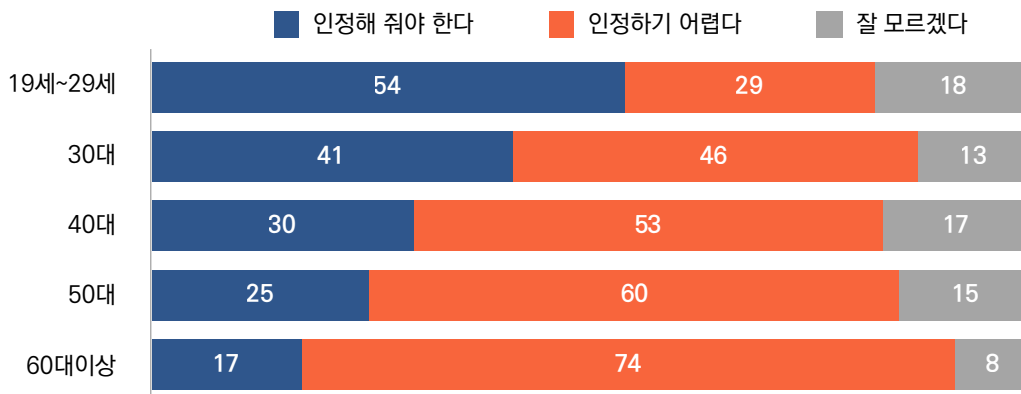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변화 조사'(만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08.13.~20)

● 일반 국민, 2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동성애 부정이 높아!

- 일반 국민의 동성애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동성애 부정 인식보다는 긍정 인식이 높으며, 30대부터는 부정 인식이 더 높다.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부정(74%)과 긍정(17%) 간에 4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인식(연령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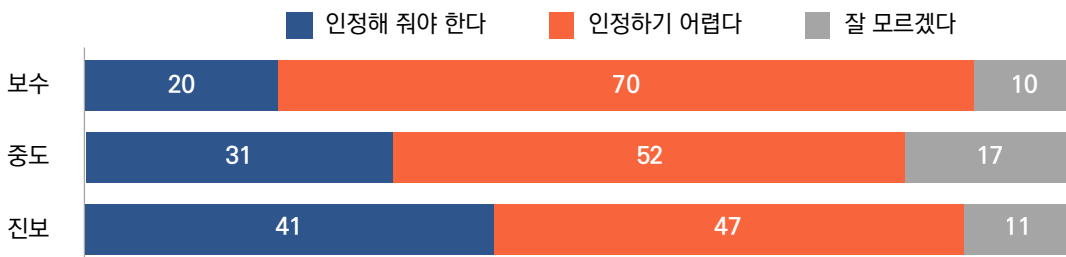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장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변화 조사'(만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08.13.~20)

● 일반 국민의 동성애 부정 인식, 보수 성향층이 진보 성향층보다 훨씬 높아

- 일반 국민의 동성애 인식을 이념 성향별로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 인식에 대해 ‘보수’ 70% ‘중도’ 52%, ‘진보’ 47%로 보수 성향층이 진보 성향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보 성향층에서 동성애 긍정보다는 부정 인식이 더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념 성향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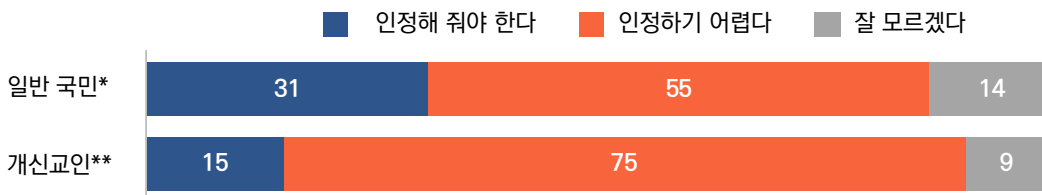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정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변화 조사'(만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08.13.~20)

2

개신교인 4명 중 3명, 동성애 ‘인정하기 어렵다’

-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두 그룹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는데, 일반 국민(55%)보다 개신교인(75%)이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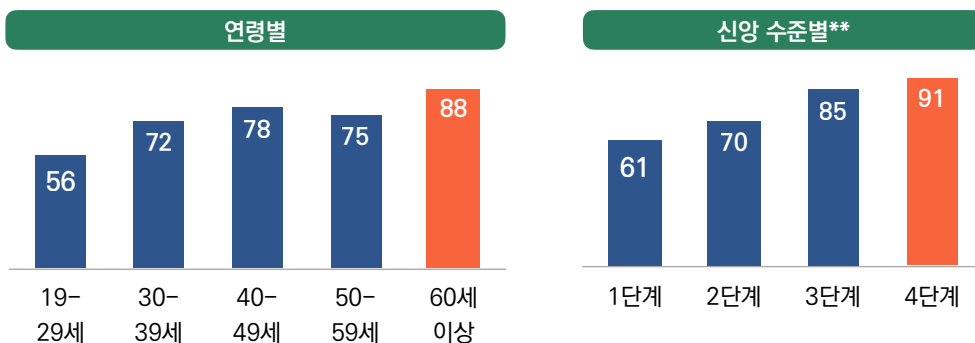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정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변화 조사'(만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08.13.~20)

** 자료출처: 예정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11.14.~23)

● 개신교인의 동성애 인식, 연령 변수와 신앙 변수가 비슷하게 높게 작용!

- 일반적으로 동성애 인식은 신앙이 깊을수록 부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는 신앙 수준 변수와 연령 변수가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동성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 인식의 경우 20대 56%, 60세 이상 88%로 두 그룹 간 32%p의 차이를 보이는데, 신앙 수준별로 보면 신앙이 가장 약한 1단계 그룹은 61%, 가장 강한 4단계 그룹은 91%로 두 그룹 간 30%p 차이를 보여, 개신교인의 동성애 인식에 있어 연령과 신앙 수준 변화가 서로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동성애 '인정하기 어렵다' (개신교인) (%)



*자료 출처 : 예정합동, '코로나19 이후 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11.14.-23)

** 신앙수준 1)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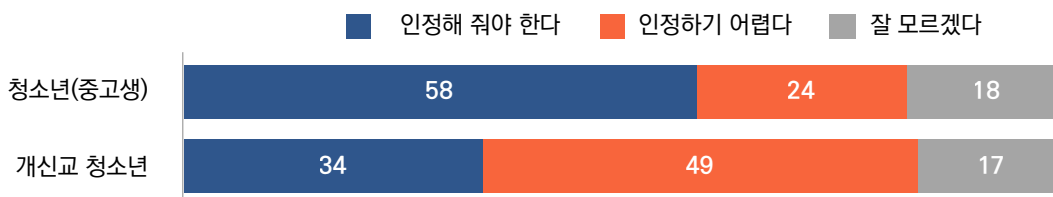
3



청소년, 전체적으로 동성애 긍정 인식이 높으나, 개신교 청소년은 부정 인식이 더 높아!

- 그러나 일반 청소년(중고생)의 경우 '인정해 줘야 한다'는 긍정 인식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음세대의 동성애 인식이 기성세대와 큰 차이가 나고 있다.
- 반면 개신교 청소년은 동성애에 대해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또래 일반 학생과 인식이 달랐다.
- 종교별로, 가톨릭이나 불교를 믿는 청소년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 인식(가톨릭 55%, 불교 67%)이 부정 인식(가톨릭 27%, 불교 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일반 중고생 vs 개신교 중고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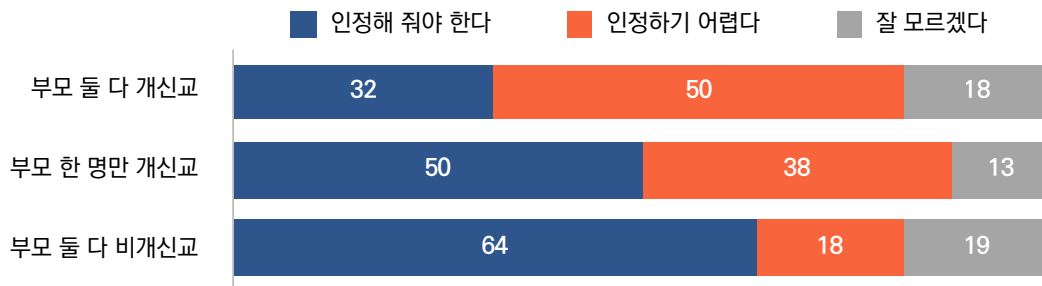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합동, 'with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변화 조사'(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8.28.-09.14)

● 개신교 청소년, 부모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 동성애 부정 인식 높아!

- 부모의 개신교인 여부에 따라서 자녀의 동성애 인식이 다른데, 부모 모두 개신교인인 학생층(중고생)에서 동성애 부정 인식이 가장 높았다.
-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동성애 긍정(41%)과 부정 인식(36%)이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여학생은 긍정 77%, 부정 12%로 동성애 긍정 인식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동성애에 대한 인식(개신교 중고생)



*자료 출처: 예장합동, 'with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변화 조사'(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0.08.28.~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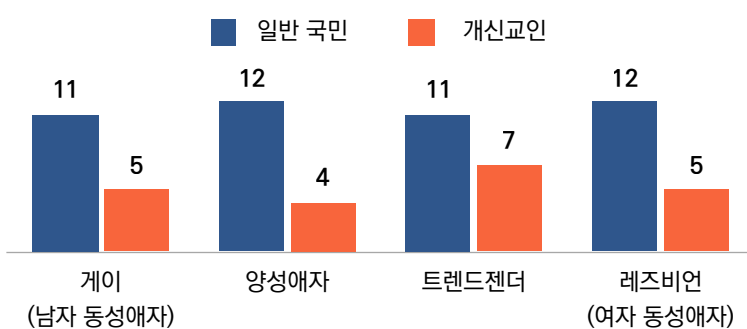
4



성소수자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호의적이지는 않아!

- 성소수자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했는데, 대체로 10% 안팎의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개신교인의 경우 5% 안팎의 매우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그림] 성소수자 호감도(호의적이다)**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2021.07.14. (전국 만18세 이상 일반 국민, 온라인조사, 2021.07.02.~07)

**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호의적이다 비율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실제 인구 수가 발표된 적은 없는데, 최근 미국 갤럽이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 자료가 발표돼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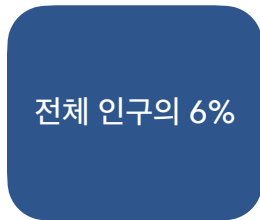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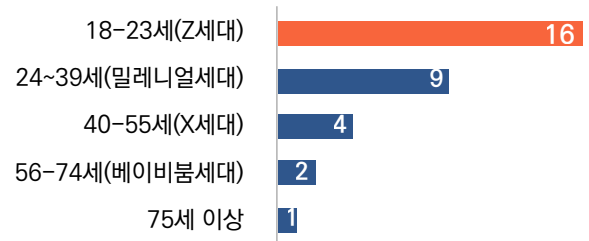
미국 성소수자, 전체 인구의 6%!

- 미국 갤럽이 최근 미국인 15,349명을 표본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성소수자는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18~23세의 Z세대의 경우 성소수자 비율이 16%까지 올라가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미국 성소수자 비율(전체) (%)



[그림] 미국 성소수자 비율(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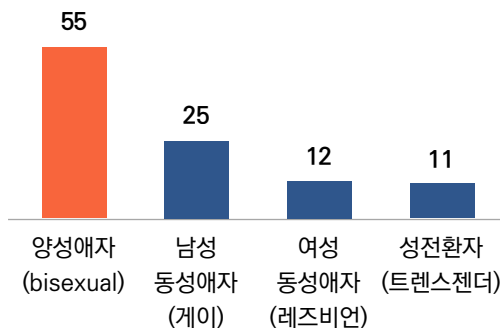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JTBC 뉴스, 2021.02.25. "미국인 100명 중 6명 "나는 성소수자"...응답자 62% 동성결혼 긍정", (미국갤럽, 미국인 18세 이상 15,349명 조사)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3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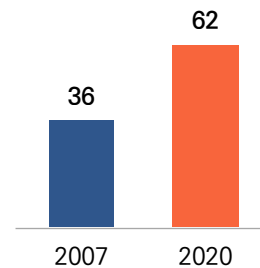
● 미국 성소수자 중 양성애자(Bisexual)가 55%로 가장 많아!

- 미국 성소수자 중에는 양성애자(bisexual)가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성 동성애자(게이) 25%,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 12% 등의 순이었다
- 미국인의 동성혼 긍정율은 2007년 36%에서 2020년 62%로 무려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미국 성소수자 구성비 (%)



[그림] 미국인의 동성혼 긍정율 (%)



*자료 출처 : JTBC 뉴스, 2021.02.25. "미국인 100명 중 6명 "나는 성소수자"...응답자 62% 동성결혼 긍정", (미국갤럽, 미국인 18세 이상 15,349명 조사)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3944)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3%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2. 팬데믹 이후 전 세계 1억 1,400만 명 실업자 발생!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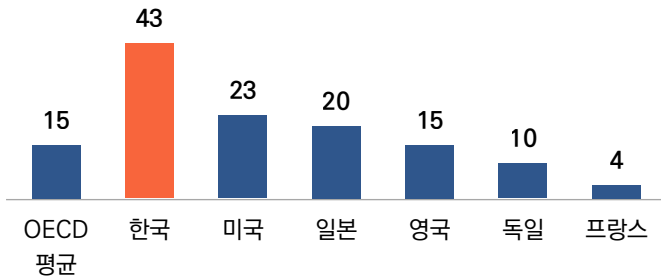
1.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3%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는데, 이는 OECD 평균 15%보다 2.9배 높은 수치이다.
(노인 빈곤율 : 65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150만 원 미만 비율이 43%라는 의미임)
- 이는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중 43%는 사회 전체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림] OECD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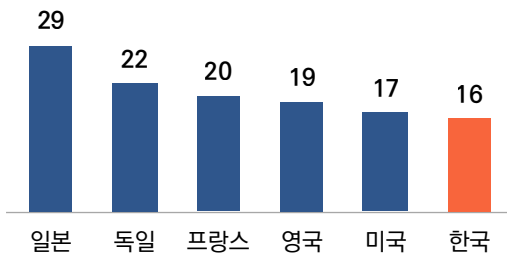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202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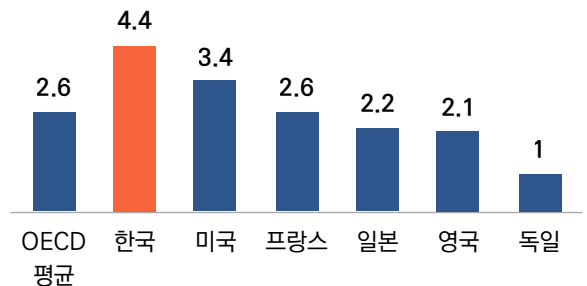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노인 인구 비율은 16%로, '일본' 29%, '독일' 22%, '프랑스' 20%, '영국' 19%, '미국' 17%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OECD 평균 2.6%보다 1.7배 높다.
- 이런 가파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로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 (2020년 기준) (%)



[그림] OECD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2021.2.18.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 팬데믹 이후 전세계 실업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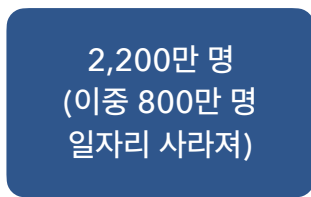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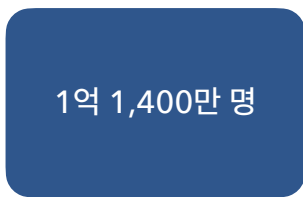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전 세계 1억 1,400만 명 실업자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2021년 고용 전망 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 1억 1,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회원국(37개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는 2,200만 명인데 이중 800만 명은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거나 기계 등으로 대체돼 돌아갈 곳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캐셔, 사서, 속기사, 여생사직원, 비서 등)

[그림] 팬데믹 이후 실업자 발생 현황(전 세계 vs OECD회원국)

팬데믹 이후 전세계 실업자 발생

팬데믹 이후 OECD(37개국) 실업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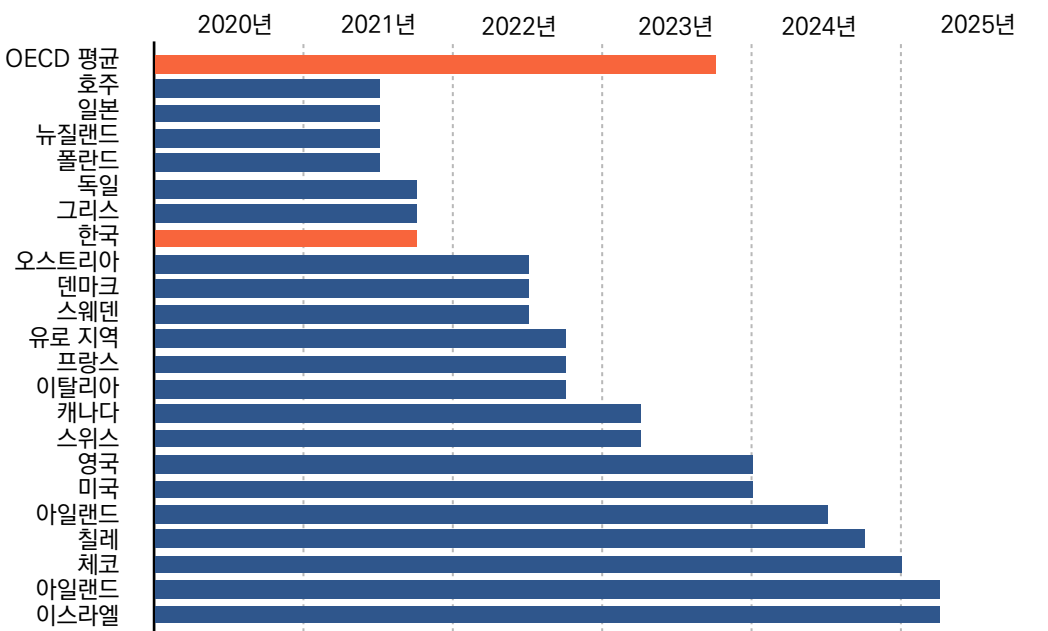


*자료 출처: 조선일보, 2021.07.09, "코로나 실업자 1억명... 감당 못할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7/09/BPTT6MMAIJF63NYLIM5E64KLG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팬데믹 이전 고용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 - OECD 평균 2023년 3/4분기, 한국은 2021년 3/4분기

- OECD는 회원국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는 평균 2023년 3/4분기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이보다 2년이 빠른 2021년 3/4분기로 예측했다.
- 한국과 비슷하게 2021년 3/4분기 이내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독일, 그리스 등이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고용을 회복 기간(OECD 회원국) (년)



*자료 출처 : OECD,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2021.07.07. (<https://www.oecd.org/employment-outlook>)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 2021년 상반기](#)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8호 \(2021년 7월 3주\)- 대선후보 적합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사회

[국민 5명 중 3명, 북한에 '관심없다'...M세대 74%까지 육박](#)

매일경제_2021.07.16.

[한국의 자살을 감소 원인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연합뉴스_2021.07.22.

[디지털 소외계층 ; 어르신들, 온라인 예약 못해 좌절](#)

중앙일보_2021.07.17.

["대학생 취업 선호 공기업, 인국공 4년 연속 1위...2위는 한전"](#)

연합뉴스_2021.07.22.

일반

[은둔청년 실태 ; "살려주세요... 방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동아일보_2021.07.17.

[코로나 상흔..."실업의 장기화, 고용 쏠림, 자동화"](#)

연합뉴스_2021.07.21.

[20대 10명중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동아일보_2021.07.16.

[가치 소비 타고 떠오르는 '비건식'...이제 고기에 비견할 만하다](#)

경향신문_2021.07.18.

경제

['사상 최다' 구직단념자...절반 가량은 2030](#)

연합뉴스_2021.07.19.

['카뱅'으로 몰려간 MZ세대...1인당 적금액 은행의 3배](#)

매일경제_2021.07.16.

[3개월새 코인 반토막... '계단식 추락'에 20대 휘청](#)

조선일보_2021.07.19.

[홈강스에 폭증한 온라인 주문... "배송착오" "배송지연" 속출](#)

동아일보_2021.07.20.

자
영
업

위
기

[840조 빚더미 자영업자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연합뉴스_2021.07.20.

[자영업자의 코로나 1년...10명 중 8명, "대출 늘었다"](#)

중앙일보_2021.03.29.

[위기의 자영업, 최저임금 동결해도 10명 중 3명 이상은 한계 상황](#)

KERI_2021.05.17.

[1만원 간짜장, 배달·수수료 4500원... 식당 '한건 배달'의 현실](#)

조선일보_2021.07.20.

기
후
환
경

[세계 곳곳 물불 안 가린 '이상기후'...재난 대비 시스템까지 쓸어갔다](#)

한겨레_2021.07.18.

[온난화의 공격... 亞-유럽에 물폭탄, 북미엔 열폭탄](#)

동아일보_2021.07.17.

[탄소배출권 시장 있으면 뭐하나, 정부 '깜깜이' 할당에 불공정 거래로 시장 왜곡](#)

중앙일보_2021.07.17.

이슈 큐레이션

[세계지성에게 10년 생존전략을 묻다\(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지리학과 교수\)](#)

한겨레_2021.07.2.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형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순복음춘천교회(담임목사 이수형)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목회데이터연구소 소식

1. <2021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 >를 알려 드립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회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2021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에 많은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사이트 : <https://connect.compassion.or.kr>
- 홍보영상 : https://youtu.be/T013_yGxB3o